



박찬호 '유격수' 제 옷 찾기 나섰다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가 꼭 맞는 옷을 입고 내야 중심에 설 수 있을까?

아쉬움 많았던 2019시즌에 박찬호는 KIA 팬들을 웃게 한 '깜짝 스타'였다. 타고난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약점이었던 공격에 힘을 더했고, 재치 있는 주루로 KBO리그 도루왕까지 차지하며 군 전역 후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 사람들은 다시 박찬호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시즌 기세를 이어 올 시즌에도 활약을 이어갈지 또 어느 자리에 서게 될지도 사람들의 관심사다.

박찬호는 지난 시즌 3루수로 역할을 했다. 내야에 안치홍-김선빈 '키스톤 콤비'가 버티고 있었고, 팀의 주전 3루수로 자리를 지켰던 이범호가 은퇴를 하면서 박찬호의 자리는 '핫코너'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서보는 자리였지만 이내 낯선 자리에 적응한 박찬호는 이범호의 후계자로 낙점받으면서 '25번'도 물려받았다.

박찬호는 올 시즌에도 25번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지만 자리에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박찬호는 유격수 자리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박찬호는 "지금은 유격수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

KIA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지난해 3루 활약... 캠프선 유격수 훈련 타격 향상에 수비 범위 넓어 전력 도움

몸무게 늘리고 웨이트로 근력 강화

"빠른 야구로 팀의 주축 되고 싶어"

는 중이다"며 캠프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유격수는 박찬호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다. 팀 입장에서 박찬호를 유격수로 투입하면 내야 수비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힐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좋았던 타격감으로 자리에 서준다면 KIA에는 최고의 전력 구성이 될 전망이다.

박찬호는 2020 시즌을 앞두고 책임감으로 힘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박찬호는 "지난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시즌을 보냈다.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이가 나이고 나도 이제 잘할 때가 됐다"고 2020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을 밝혔다.

새로운 시즌을 위해 박찬호는 힘에 신경 썼다. 몸무게를 조금 더 늘렸고, 웨이트를 통해 힘에 집중했다.

지난 마무리캠프 때 입은 무릎 부상 여파로 목표했던 80kg를 채우지는 않았지만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힘이었다.

부족한 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박찬호. 하지만 약점이 아닌 장점에 더 집중하겠다는 게 박찬호의 또 다른 이야기다.

박찬호는 "지난 시즌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장점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장점을 더 키워서 단점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많은 타자들의 바람처럼 박찬호도 '홀런 치는 타자'를 꿈꾸지만 이는 먼 미래의 목표다. 지금은 '박찬호표' 빠른 야구로 자리를 잡고 팀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박찬호는 KIA의 득점 공식이었다. 출루 후 상대 배터리를 괴롭히면서 팀의 득점력을 높였다. 뛰어난 스피드 자체는 '초특급'이 아니지만 빠른 상황 판단과 재치로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왕' 자리에 등극했다.

박찬호는 "야구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다"며 "빠른 야구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ML 선발 시험대 선 김광현

22일 시범경기 로테이션 합류 이번달 말 결정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의 선발 로테이션 합류 여부가 이달 말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 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 시범경기에 등판한다.

팀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김광현은 예정대로 마운드에 오른다.

김광현은 12일 주피터 로저 딘 스타디움 훈련장에서 열린 스프링캠프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2일(메츠와) 시범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 경기에 앞서 불펜 피칭과(타자를 상대하는) 라이브 피칭을 한 차례씩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현의 메츠전 등판은 일찌감치 결정됐다.

메이저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메츠는 김광현과 계약 후 곧바로 시범경기 등판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합류에 앞서 22일 시범경기를 겨냥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라는 주문이었다.

김광현은 구단 주문대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컨디션을 조절했고, 미국 플로리다 SK 와이번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불펜 피칭 훈련을 소화했다.

예년에 비해 빠르게 훈련 강도를 높였는데, 이는 22일 메츠와 시범경기 출전 일정 때문이었다.

김광현은 메츠전에서 약 2이닝 정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일 메츠전은 세인트루이스의 올 시즌 첫 실전 경기다. 팀으로서 꽤 중요한 경기다. /연합뉴스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김광현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 딘 스타디움 훈련장에서 훈련에 임하기 전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연합뉴스

아쉬운 기성용 K리그 복귀 무산

서울·전북과 협상 포기...SNS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11년 만의 'K리그 유턴'을 준비했던 기성용(31·전 뉴캐슬)의 노력이 끝내 무산됐다. 기성용의 매니저먼트사인 씨투글로브는 11일 "기성용이 전남 FC서울과 전북 현대에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씨투글로브는 "선의로 타진했던 국내 복귀가 두 구단을 비롯해 K리그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태로 번졌다"라며 "기성용이 올해 K리그로 복귀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캐슬(잉글랜드)과 결별한 기성용은 국외 리그 다수의 구단과 협상을 진행하며 차기 행선지를 정하게 됐다.

기성용은 2020시즌 K리그1 개막을 앞두고 국내 복귀를 추진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09년 셀틱(스코틀랜드) 유니폼을 입고 유럽에 진출한 기성용은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 선덜랜드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뉴캐슬에서 뛰었다.

지난해 12월 뉴캐슬의 이적 허락을 받고 새로운 동지 찾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구단과 결별하며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렸다. 국내 복귀를 생각한 기성용은 친정팀인 서울은 물론 사실상 높은 몸값을 부담해줄 수 있는 유일한 팀인 전북과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성용은 2009년 셀틱으로 이적할 때 서울과 '국내 복귀 시 우선협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북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높은 위약금도 전북과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



기성용은 서울은 물론 전북과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국내 복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씨투글로브는 "기성용이 K리그 복귀 무산에 상심하고 있다"라며 "국내 팬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성용은 K리그 복귀 불발 발표가 난 뒤 SNS 계정에 영어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팬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기성용은 대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짓말로 나를 다치게 하면 나는 진실로 너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라"며 국내 복귀 불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불화 있었나...클린스만, 2개월만에 감독직 사퇴

독리그 베를린 구단 공식 발표...선수 영입에 980억 쓰기도 성적 제자리

스타 선수 출신의 사령탑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프로축구 헤르타 베를린 감독직에서 2개월 만에 갑작 사퇴했다.

베를린 구단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이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아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11월 27일 베를린 지휘봉을 잡은 뒤 불과 77일 만의 사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를린 구단은 클린스만 감독이 갑자기 사퇴해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과 선수단장에게도 사퇴 직전에야 이를 알렸다.

미카엘 피츠 단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와 지난 경기 분석을 하는 듯했는데 갑자기 사임한다고 말했다"면서 "겨울 이적시장에서 구단과 클린스만 감독이 잘 협의하는 등 그만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과 구단 수뇌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단 사람들의 신뢰 없이는 감독으로서 잠재력을 표출할 수도, 성적에 책임감을 가질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감독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16년 미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된 뒤 한국 대표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감독으로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베를린 구단의 자문역 이사를 맡게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질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무대로 복귀했다.

클린스만이 부임했을 때 15위이던 베를린은 현재 14위에 자리해있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베를린은 마테우스 쿠냐, 크 시슈토프 피용테크 등 선수들을 대거 보강하며 7600만 유로(약 980억원)를 썼지만, 성적에 큰 변화가 없다.

알렉산더 누리 수석코치가 당분간 베를린을 이끈다. /연합뉴스